

# 호남선 상징 목포역 신축한다...490억 투입 노후시설 개량



호남선을 상징하는 대표 역사인 목포역이 준공 반세기 만에 노후 시설 개량을 통해 신

### 전남도, 국회 등에 노후 역사 개량 지속 건의 결과 반영돼 고객 이동 동선 최적화한 선상 역사로 건설...2028년 준공

상 역사(線上驛舍)로 신축된다. 선상 역사는 철로 위에 승객 맞이방을 비롯해 각종 여무 시설이 들어선 역사를 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는 앞서 지난 11월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마친 가운데 내년 실시계획을 거쳐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해 쾌적한 역사 환경과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을 최적화한 선상 역사로 신축한다. 목포역은 1913년 개통된 이래로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용객은 평일 평균 7000여명, 주말 평균 1만명 이상으로 서남권 최대의 교통 집결지다. 호남선과 남해선의 거점역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시·종착역이라는 높은 상징성도 갖고 있다. 이번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전남도가 목포시와 함께 2022년부터 수 차례 국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노후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해 반영됐다. 전남도는 또 도민에게 최상의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철도 건설 사업 예산 5511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4840억),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382억), 남해선(보성-임성리 289억) 철도 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동북해안시대 글로벌 관문이자 철도·도로·해양 진출의 기점인 목포역이 노후화돼 공간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남해선 '보성-임성리' 철도가 개통되고 선상역사로 신축되는 목포역이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안전보안관 캠페인 실시

7일 전남 함평군이 함평전지전통시장 및 함평공용터미널 일원에서 안전보안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군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함평군 안전관리과 직원들과 안전보안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함평군 안전보안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 무시 7대 관행 근절, '안전하세요?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를 강조하며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 영광군, 2024 전남 양대체전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 추진분야별 준비상황 및 방향 공유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 전남도 양대체전 추진분야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며 성공 체전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정섭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각 부서 추진분야별 실무담당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준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광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섭 부군수는 우리 군에서 15년만에 열리는 양대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 부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각 분야별로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귀향인의 보금자리' 영암군, 마더스하우스 1호 완공

### 5000만원 들여 빈집 리모델링...내년 사업 본격화



영암군이 신북면 수현마을에 귀향인의 보금자리 '마더하우스' 1호를 완공했다.

마더하우스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고향'이란 의미를 담아 영암군이 '귀향인 주택수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5000만 원을 투입해 수현마을 한 빈집 방·부엌·화장실 등을 새 단장했다. 마더하우스 1호점의 주인공은 김금순 씨이다. 김 씨는 영암에서 태어나 살다 결혼과 함께 서울로 떠났다. 대학에서 축산업을 공부한 아들이 영암에서 축산업을 결심하자, 남편·아들과 함께 지난 2019년에 귀향해 빈집을 수리해 살아왔다. 올해 영암군의 마더하우스 사업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이번에 첫 마더하우스 주인이 되었다. 김 씨는 10일 "새로 태어난 집을 보며 가족이 다 기뻐하고 있다"면서 "잘 가꾸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영암에서 살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현재 영암읍 2호점, 군서면 3호점 마더하우스의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마더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내년 1월 영암군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볼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겨울풍경과 애기동백꽃'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개막...25일간

신안군은 8일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2023 섬 겨울꽃 축제' 개막식을 가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3 섬 겨울꽃 축제'는 신안군의 겨울풍경과 애기동백꽃을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25일간 펼쳐진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소원지 쓰기, 느린엽서 쓰기, 동백꽃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이벤트 행사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말 보물찾기가 진행된다. 또한 유료 입장객 중 1004번째, 2004번째, 1만4번째 입장객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하는 '행운의 입장객' 이벤트로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섬 겨울꽃 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꽃 축제로 자리 잡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애기동백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모든 방문객이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노을미술관에서는 내년 2월 29일까지 '하얀 겨울, 애기동백꽃 피는 섬'을 주제로 애기동백 특별전이 진행된다. 특별전에는 오랜 시간 동백꽃을 그려온 동백꽃 그림의 대가 허주 강종열 작가와 섬과 꽃

에 화려한 색채를 불어넣는 보검 이미경 작가가 참여한다. 신안=이덕주 기자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개막식 모습. 박우량 신안군수가 축제를 대표하는 겨울꽃 축제로 자리 잡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애기동백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모든 방문객이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